

학교문법의 문법 단위 분석*

송 정 근**

<차례>

1. 서론
2. 형태 분석과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3. 단어의 IC분석과 혼성어
4. 문장의 계층적 분석과 문장성분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학교문법의 문법 단위 가운데 형태소, 단어, 문장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문법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법 단위의 분류와 체계를 다루는 학문이므로 학교문법에서 그러한 분류의 결과와 체계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단순한 최종 결과가 아닌 개별 문법 단위에 대한 분석 과정이나 분석 방법에 대한 교육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먼저 형태 분석과 관련하여 우리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상대 높임법 체계에 따라 ‘-는 ~ -ㄴ-’ 또는 ‘Ø’으로 나타나므로 이 두 형태가 모두 제시되어야 함에도 현행 교과서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 두 형태를 모두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통시적인 종결어미의 발달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던-’, ‘-는’ 등에서 시제 선어말어미 분석 역시 필요한데, 이러한 분석이 중세국어의 시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어 분석에서는 단어를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결과적 분류 체계만을 교육하기보다는 단어를 직접구성요소 분석하여 계층적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이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단어나 통사적 구성에서 임의로 절단된 음절이 결합하여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형성되는 혼성어, 두자어 등의 신어들은 기존의 단어형성 틀인 합성이나 파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어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방식들을 알려주고 단어를 직접 분석해보는 연습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문장 분석 가운데 문장성분 분석은 문장의 구성성분들의 관계를 포착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관형어와 같은 문장성분은 후행하는 단어 즉 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문장성분과 품사와의 관계가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관형어는 수식하는 명사의 기능에 따라 통사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성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어나 서술어의 설정과 관련해서도 관형사절이나 명사절 내부에 있는 주어나 서술어도 구체적으로 학교문법 교육에서 명시하여 표시하는 것이 학생들이 문장성분을 학습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주제어 : 학교문법, 형태소, 형태 분석, 시제, 선어말어미, 혼성어, 단어분석, 문장성분, 관형어

1. 서론

언어에 대한 이해는 언어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성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언어의 말소리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소리를 구성하는 음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언어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나 형태소 등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법 단위에 대한 교육은 문법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법 교육에서 문법 단위에 대한 교육은 분석 결과로서의 문법 단위의 체계를 교육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다. 가령 단어를 단일어와 복합어로, 복합어를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하다는 분류 결과로서의 체계를 학습하게 하고, 단어들을 그 체계 속으로 분류하는 연습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의 분류 체계 자체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단어를 실제 분류하는 방법론을 학습하거나 단어의 구성성분이 갖는 의

미나 기능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추상적인 문법 지식보다는 구체적인 문법 단위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문법 범주의 실현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문법 범주에 대한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형태소, 단어, 문장 등의 문법 단위에 대한 현행 학교문법 설명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들 문법 단위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상적이고 개별적인 문법 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통합적인 문법 범주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간으로 현행 학교문법 교육의 형태 분석, 단어 분석, 문장 분석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형태 분석과 관련하여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에 대한 현행 학교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내부 구성성분에 따른 단어 분류와 분류 체계의 문제를 살펴보고 4장은 문장 분석과 관련하여 문장성분 분석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2. 형태 분석과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음 단위인 음소(音素)나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인 형태소(形態素)는 각각 음운론과 문법론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 단위이다. 이들은 직접 실현되는 이음이나 이형태들을 아우르는 추상적인 단위이므로 일정한 언어 교육을 통해서만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단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법 교육에서 형태소의 개념을 학습하고 실제 언어 단위에서 형태소를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활용 양상이 복잡한 우리말에서는 활용형에 대한 형태 분석을 통해 어간, 어미를 구분할 수 있고, 개별 형태들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언 활용형에 대한 형태 분석이 형태소 학습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에 비해 그 수도 적고 기능이 비교적 명확하여 자료로 삼기에 좋다. 먼저 교과서들의 형태 분석과 시제 선어말어미 분석과 관련된 설명을 살펴보자.

(1) 탐구1. 다음의 예를 바탕으로 형태소를 탐구하여 보자.

하늘에, 너와 나, 할 수 없지, 시원하다, 반짝반짝, 그 사람, 땀 뚫이나,
첫 싸움, 어서 오너라, 펍 좋구나, 풋사랑, 걱정스럽지, 아이구, 예
(교육인적자원부 2002:83)

(2) 동사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과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이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쓰이거나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교육인적자원부 2002:179-180쪽)

(1)에서는 형태 분석을 통해,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문법형태소, 어휘형태소 등이 모두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는 활동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2)의 진술에서는 시제 선어말어미의 일부만을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사의 경우 종결어미에 따라 현재 시제는 선어말어미 ‘-는/-ㄴ-’ 뿐 아니라 ‘Ø’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영형태소 ‘Ø’를 인정하고 있고 있으나 유독 동사의 경우에는 ‘-는/-ㄴ-’만 소개하고 있다. (2)의 설명이 형태 분석이 아닌 현재 시제를 설명하는 단위라면 시제 선어말어미의 구체적인 양상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교과서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과 분량의 한계로 인해 현행 교과서에서 형태 분석 연습이나 시제 선어말어미 분석과 관련한 설명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분량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분석에 대한 설명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말에서 시제 선어말어미의 수가 많지 않고, 과거나 현재와 같은 시제는 일상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문법 범주이므로 실제 활용형들을 통해 시제 선어말어미들을 확인하는 연습이 아주 어려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를 분석할 수 있는 몇 가지 활용형들을 살펴보자.

(3) 가.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 갔다, 간다, 가겠다

나. 먹었습니다, 먹습니다, 먹겠습니다 / 갔습니다, 갑니다, 가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먹어(요), 먹겠어(요) / 가겠어(요), 가(요), 가겠어(요)

(3가)는 상대 높임 체계의 ‘해라’체에 해당하는 어미 앞에서 시제 선어말어미의 실현 양상을 보인 것이다. 여기서 현재 시제는 ‘먹는다’, ‘간다’에서 선어말 어미 ‘는~ㄴ’으로 실현되고 있다. 반면 ‘합니다’체를 보인 (3나)와 ‘해(요)’체를 보이는 (3다)에서 현재 시제는 ‘먹습니다’, ‘갑니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사의 현재가 ‘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¹⁾ 어간인 ‘먹-’, ‘가-’에 종결어미 ‘-습니다’, ‘-니다’가 바로 결합되어 시제 선어말어미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3)에서 과거 시제는 ‘-었-’, 미래 시제는 ‘-겠-’으로 실현되고 있다.

(3)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우리말 시제 선어말어미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다. 우리말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고 이것이 선어말어미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 과거나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와 달리,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에 따라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에서 확

1) 관점에 따라 (3가)의 선어말어미 ‘는~ㄴ’을 따로 분석하지 않고 어말어미의 일부로 보아 어말어미 ‘는다~ㄴ다’를 설정한다면 (3)에서 현재 시제는 모두 ‘Ø’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었-’, ‘-겠-’과 함께 ‘-는-, -ㄴ-’을 분석하는 것이 학교문법의 수준에서 설명이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인되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의 분포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상대높임에 따른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해라’체	‘-는-~-ㄴ-’
‘합니다’체	‘Ø’
‘해(요)’체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 높임법에 따른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의 차이와 관련하여 박진호(2012:306)에서는 ‘-다’처럼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종결어미 앞에서는 과거 ‘-었-’ 대 현재 ‘-ㄴ-’, ‘-는-’ 등의 이형태로 실현되는 ‘-느-’(<‘-느-’>)의 대립 체계를 지니게 되었고, ‘-습니다’, ‘-어’처럼 새로 만들어진 종결어미 앞에서, 그리고 형용사의 경우는 과거 ‘-었-’ 대 현재 ‘Ø’의 대립 체계를 지니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우리말 동사는 종결어미에 따라 과거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의 대립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활용형에 대한 형태 분석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문법 교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통시적인 선어말어미 변화 양상,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의 발달 문제 등의 심화 학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²⁾ 따라서 (3, 4)에서 보인 형태 분석은 의외로 커다란 문법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제 선어말어미 분석 문제와 관련하여 관형사절의 시제 분석도 검토되어야 한다.

2) 이러한 통시적인 어말어미 체계의 재편은 이승희(2008)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이승희(2008)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5) 가. 밥을 먹은 철수
 나. 밥을 먹던 철수
 다. 밥을 먹는 철수

(5) 밑줄 친 부분의 ‘-은’, ‘-던’, ‘-는’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분석하게 되면, 시제 선어말어미가 따로 분석된다. 즉 (5가)에서 ‘Ø’, (5나)에서 ‘-더-’, (5다)에서 ‘-느-’가 분석되고 이들은 과거와 현재 등을 나타낸다. 그런데 현재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들의 분석을 다루지 않고 ‘-는’, ‘-던’과 같이 통합된 형태 전체를 관형사형 어미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가능한 최대한 분석한다는 형태 분석의 기본적인 원칙에서도 벗어난 것이기도 하고 형태 분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시제나 상과 관련된 중요한 통시적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5)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제외한 시제 선어말어미 체계는 중세 국어의 시제, 상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동주(1995)에서 밝히 바와 같이 중세 국어의 현재 시제는 ‘-느-’로 나타내는 반면, 과거 시제는 이른바 완망상 ‘Ø’과 비완망상 ‘-더-’가 존재했다고 한다.³⁾ 이러한 체계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의 등장으로 종결형이나 연결형에서는 현재와 같은 선어말어미 체계로 재편되었지만, 관형사형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5가)의 ‘먹은’과 (5나)의 ‘먹던’의 의미 차이는 그대로 중세국어 동사와 결합한 과거 시제를 나타내던 ‘Ø’와 ‘-더-’의 의미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중세국어 문장의 시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완망

3) 상(aspect)과 관련된 개념으로 ‘perfective’와 ‘imperfective’는 번역어가 아직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다. ‘완료/미완료’, ‘완결/미완결’, ‘완망/미완망’ 등의 용어가 쓰인 바 있는데, 여기서는 ‘완망상’, ‘비완망상’을 쓴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임동훈(2010:20)에 잘 정리되어 있다. 박진호(2011:304)에 따르면 완망상은 사태를 멀리서 하나의 점처럼 바라보는 것이고, 비완망상은 가까이에서 사태의 내적 시간 구조나 전제 양상에 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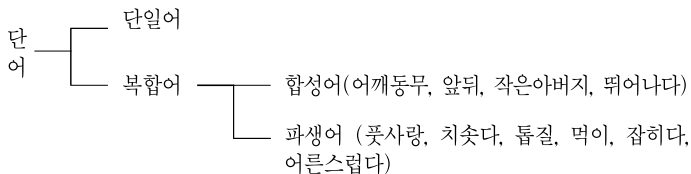
상이나 비완망상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먹은 밥’과 ‘먹던 밥’의 의미 차이에 대한 직관을 활용한다면 중세국어 과거 시제의 두 형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5)는 중세국어 시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셈이다.

우리는 앞서 문법 교육에서 결과로서의 문법 지식보다는 구체적인 문법 단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했는데, 활용형의 분석이나 시제 교육에서 구체적인 형태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해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시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시적인 시야로 문법 지식을 확대한다면 형태 분석이 종결어미 형성과 관련된 통시적 연구나 상대높임법의 어미 체계와 같은 통합적 문법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단어의 IC 분석과 혼성어

언어 단위 가운데 단어는 엄밀한 정의는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언어 단위이다. 단어는 그 문법적 성격에 따라 품사 분류되기도 하고 그 내부 구조에 따라 단일어나 복합어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단어의 내부 구조를 바탕으로 한 단어의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6) 단어의 분류



(6)은 교육인적자원부(2002:84)에서의 분류 체계로 학교문법뿐 아니라 일반 국어학 연구에서도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분류의 결과일 뿐 그 분류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흔히 합성어와 파생어는 단어의 구성 성분 가운데 접사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지만, 단순한 접사의 유무라는 기준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가령 ‘김치찌개’의 경우, 단어의 구성 성분으로서 접사 ‘-개’가 분석되지만 이 단어를 파생어로 분류하지는 않는 것이다. ‘김치찌개’는 ‘김치’와 ‘찌개’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성분 중 파생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김치찌개’는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찌개’에 접미사 ‘-개’가 존재하므로 ‘찌개’는 파생어라고 할 수 있으나 ‘-개’는 ‘김치찌개’의 직접구성요소(IC, immediate constituent)이 아니므로 구성 성분에 따른 단어의 분류에서 접미사 ‘-개’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은 직접구성요소 중 접사의 존재 여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6)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어들은 구성 성분이 두 개인 단어들로 이들 단어들은 직접구성요소 분석이 필요 없이 그 구성성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예들이다. 물론 초급 학습에서는 이런 단어의 분석을 배울 수 있겠으나, 직접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단어들의 계층적 결합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 언어 단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을 달기 어렵다. 따라서 직접구성요소 분석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단어의 계층적 구조와 분석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의 단어들을 살펴보자.

- (7) 가. 놀이터, 줄넘기, 코웃음, 말다툼, 보물찾기
나. 해돋이, 고기잡이, 목걸이, 꽃꽂이, 몸가짐.

(7가)의 단어들은 직접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단어구조를 계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단어들이다. 가령, ‘놀이터’는 ‘[[놀이]터]’와 같이 분석되

는데, 접사 ‘-이’는 ‘김치찌개’의 ‘-개’와 마찬가지로 ‘놀이터’의 직접구성요소가 아닌, 한 층위 아래 ‘놀이’의 직접구성요소이다. (7나)는 직접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예들이다. 가령, ‘해돋이’에서 ‘돋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돋이]]’로 분석하기도 어렵고, ‘해돋다’와 같은 단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돋[이]]’로 보기도 어렵다. 물론 (7나)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어의 계층적 구성에 대한 이해나 다양한 분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험이 합성어와 파생어와 같은 분류 결과에 대한 단순한 학습보다 단어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언어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직접구성요소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학교문법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⁴⁾

단어 형성이나 신어와 관련하여 학교문법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학교문법 체계에서 (3)은 내부구성에 따른 단어의 분류 체계인 동시에 단어 형성의 체계로 기능한다. 즉 분석 방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 합성어가 형성되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아쉽게도 이러한 단어 형성의 체계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신어들을 올바르게 포착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음의 단어들을 살펴보자.⁵⁾

-
- 4) 국정교과서 체계가 아닌 검인정 체계에서는 한두 교과서 정도에는 직접구성요소 분석이 소개될 만도 한데 그런 교과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정교과서 체계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교과서 집필 기준에 마지막 국정교과서 체계를 가능한 따를 것을 명시한 까닭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5) (5)는 노명희(2010), 박용찬(2008)에서 제시된 예들의 일부이다. 혼성어는 절단 발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형성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 (8) 가. 브런치(breakfast+lunch), 레캉스(leisure+vacance)
 나. 거렁뱅이(거지+비렁뱅이), 라볶이(라면+떡볶이)
 다. 밥버거(밥+hamburger), 트통령(twitter+대통령), 득템(득+item)
 라. 쌍수(쌍꺼풀 수술), 완소남(완전 소중한 남자), 먹방(먹는 방송)

(8가, 나)는 이른바 혼성어로 두 단어가 모두 일부 절단된 형식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한 경우로 (8가)는 외래어의 절단, (8나)는 고유어의 절단을 보인 예이다. (8다, 라)는 단어나 통사 구성의 맨 앞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로 이른바 두자어의 예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최근 신어의 형성에서는 매우 활발한 기능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⁶⁾

혼성어나 두자어 등의 개념을 학교문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단어의 종류 체계를 풍부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8)과 같은 단어들의 형성에 관한 관찰을 통한 단어형성 기제에 대한 관찰이나 분석이 더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라볶이’에서 ‘라’는 ‘라면’에서 절단된 형태인데 이 ‘라’가 기존의 학교문법에서 어근인지 접사인지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의 어근이나 접사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언어단위가 단어형성에서 빈번하게 분석되는 것이다.

혼성어나 두자어는 기존의 합성이나 파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단어형성 방식이다. 그 구성성분도 어근이나 접사의 범위에 들지 않을뿐더러, (8라)와 같이 통사론적 구성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태론과 통사론 모두와 관련 있는 단어부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합성이나 파생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단어형성 체계를 단순히 학습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방식의 단어형성 절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개별 단어들의 형성 과정과 문법 단위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6) 박용찬(2008)에서는 혼성어가 대부분 외국어의 단순 차용의 수준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새로 만든 혼성어가 등장하면서 단어 형성의 중요한 방식으로 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인 분류 체계나 분석의 결과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보다, 자신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능동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단어형성 절차를 학습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인간의 언어 능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문장의 계층적 분석과 문장성분

문장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법 단위는 문장성분이다. 문장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말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2:150). 문장성분과 관련된 연구는 최현배(2937/1971)로 대표되는 학교문법의 정착 이후에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으나, 보어 설정의 문제, 필수 부사어의 문제, 독립어의 설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다.⁷⁾

여기서는 이러한 개별 문장성분 설정에 대한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장성분의 확인 및 분석과 관련된 교육 문제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학교문법의 문장성분 교육의 가장 기본은 문장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문장을 이루는 개별 성분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문장성분을 바탕으로 문장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문장성분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장 분석과 문장성분의 확인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 문장을 통해 문장성분 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정리해보자.

(9) 이 책은 누나가 어제 읽은 소설이다.

7)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건희(2014), 이흥식(199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9)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논의의 편의상 (1)의 주어와 서술어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9)의 주어는 ‘이 책은’이다. ‘이 책은’은 관형사 ‘이’가 관형어로 명사 ‘책’을 수식하고 명사구 ‘이 책’은 보조사 ‘은’과 결합하여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책’에 먼저 조사가 결합하고 ‘책은’을 ‘이’가 수식하는 설정을 상정하기 어렵다. 관형사가 ‘이’가 수식하는 것은 ‘책’이지 ‘책은’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은 ‘[[이 책]은]’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⁸⁾

이러한 설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관형어 ‘이’가 수식하는 것은 체언 즉 명사라는 사실이다. 문장성분과 품사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범주이나 문법 설명에서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별개가 아닌 지점으로 관형어가 명사를 수식하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⁹⁾

(9)의 서술어는 ‘소설이다’이다. 이 문장에서 ‘소설이다’의 ‘소설’은 ‘이 책은’과 유사하게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누나가 어제 읽은’은 관형사절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책은’에서 ‘은’이 ‘이 책’ 전체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은]’과 같은 분석을 상정한다면 서술격조사 ‘이다’는 ‘누나가 읽은 소설’ 전체와 결합하고 있다고 설명해줘야 한다. 즉 ‘[[[누나가 읽은] 소설]이다]’¹⁰⁾와 같은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 ‘누나가 읽은’과 같은 관형사절은 관형사 ‘이’와 동일하게 관형어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
- 8) 조사가 선행하는 명사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과 결합한다는 설명은 이미 학교문법 교과서에 잘 기술되어 있다.
- 9) 문장성분과 품사와의 관계는 박진호(2003:70)이나 김건희(2014:296)에서도 잘 지적되어 있다. 품사와 품사 사이의 관계나 문장성분과 문장성분 사이의 관계로 문장 요소들의 관계를 설명해서는 안 되고 문장성분과 그 뒤에 오는 품사 사이의 관계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10) 이러한 분석에서는 조사나 어미의 분석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령 문장이나 절이 종결어미에 의해 관할되고 있다는 기술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문장성분을 다루는 본고는 이러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여기서 관형어의 문장성분 분석상의 층위가 주어나 목적어 등의 성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교문법에서 이른바 주성분과 부속성분의 구분은 이러한 성분들 간의 이질성을 포착하기 위해 상정된 개념이다.

- (10) 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나.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성분: 관형어, 부사어
 다. 다른 문장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성분: 독립어

(10)에서 동일한 부속성분으로 분류된 관형어와 부사어는 실제 문장에서의 문법적 지위가 이질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먼저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 (11) 가. 아버지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나. 아버지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다. 아버지의 가방에서 물병을 찾았다.

(11)에서 ‘아버지의’는 모두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후행하는 명사와 함께 명사구를 형성하고 이 명사구는 (11가, 나, 다)에서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11가)에서 주어는 ‘아버지의 사진이’이다. ‘아버지의’는 관형어 이면서 동시에 주어(혹은 주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즉 관형사는 자신이 수식하는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소속이 결정된다. 말 그대로 부속되어 있는 성분인 것이다.¹¹⁾

이에 비해 부사어는 부속성분이라 하더라도 관형어와 같이 다른 문장성분의 하위 층위에 존재하기보다는 서술어와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학교문법의 설명에서라면 이른바 필수 부사어와 같이 필수 성분

11) 송원용(2007)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형어 개념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관형어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문법 체계에서 동일한 부속 성분이지만 관형어와 부사어는 실제 문장에서의 구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문장성분 분석은 궁극적으로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개념들 즉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등의 분석 결과물들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기보다는 그 방법론으로서 문장성분에 대한 계층적 분석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법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9) 문장에서 관형사절 내부의 문장성분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9)에서 ‘누나가 어제 읽은’은 관형사절로 내포문 즉 안긴문장이다. 형식적으로 절이지만, 실제로는 ‘누나가 어제 소설을 읽었다’와 같은 문장이 ‘이 책은 소설이다’ 속에 안겨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긴문장인 관형사절의 주어가 ‘누나가’이고 서술어는 ‘읽은’이라는 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9)에서 주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문의 주어 ‘이 책은’과 관형사절의 주어 ‘누나가’임을 적절히 설명해 주는 것이 문장성분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문장의 분석이 계층적으로 이루어짐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올바른 문장 분석을 위해서는 계층적인 문장 분석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문장의 핵으로서 서술어를 기준으로 개별 성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어의 기능하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장성분과 품사와의 관계, 절이 갖는 문장으로서의 기능과 그 내부 문장성분의 분석 문제 등은 학교문법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5. 결론

본고는 학교문법의 문법 단위 가운데 형태소, 단어, 문장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문법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법 단위의 분류와 체계를 다루는 학문이므로 학교문법에서 그러한 분류의 결과와 체계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단순한 최종 결과가 아닌 개별 문법 단위에 대한 분석 과정이나 분석 방법에 대한 교육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핵심적인 주장이라 하겠다. 개별 문법 단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형태 분석과 관련하여 우리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상대 높임법 체계에 따라 ‘-는- ~ -ㄴ-’ 또는 ‘Ø’으로 나타나므로 이 두 형태가 모두 제시되어야 함에도 현행 교과서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특히 비교적 오래된 종결어미 앞에서 현재 시제는 ‘-는-~ㄴ-’으로 표시되는 반면, 비교적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종결어미에는 ‘Ø’가 쓰인다는 점에서 이 두 형태를 모두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통시적인 종결어미의 발달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던-’, ‘-는’ 등에서 시제 선어말어미 분석 역시 필요한데, 동사의 관형사형 ‘-은’, ‘-던’에서 ‘Ø’과 ‘-더-’는 과거를 ‘-는’에서 ‘-느’는 현재를 나타낸다. 이러한 양상은 중세국어의 시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교육적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세국어의 완망, 미완망과 같은 상적 의미를 관형사형 ‘먹은’과 ‘먹던’의 의미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교육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2. 단어 분석에서 합성어와 파생어는 복합어의 구성 요소 가운데 접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김치찌개’와 같이 단어의 구성이 계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접사가 있는지 여부만으로는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판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구성요소 분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단어를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결과적 분류 체계만을 교육하기보다는 단어를 직접구성요소 분석하여 계층적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이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합성과 파생은 단어형성 기제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합성이나 파생의 방식으로만 설명하지 못하는 혼성어, 두자어 등이 최근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어나 통사적 구성에서 임의로 절단된 음절이 결합된 단어들은 기존의 단어형성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어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방식들을 알려주고 단어를 직접 분석해보는 연습이 단어를 이해하는 더 중요한 과제이다.

3. 문장 분석 가운데 문장성분 분석은 문장의 구성성분들의 관계를 포착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관형어와 같은 문장성분은 후행하는 단어 즉 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문장성분과 품사와의 관계가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관형어는 수식하는 명사의 기능에 따라 통사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성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다. 주어나 서술어의 설정과 관련해서도 관형사절이나 명사절 내부에 있는 주어나 서술어도 구체적으로 학교문법 교육에서 명시하여 표시하는 것이 학생들이 문장성분을 학습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문법은 이론문법의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동시에 교육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론 문법의 내용을 정확히 학교문법의 영역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교육 내용인지 검토하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본고는 주로 이론 문법의 성과를 학교문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다루었으므로 이러한 교육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문법』, (주)두산.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사용 지도서〉 문법』, (주)두산.
- 김건희,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분류에 대한 일고찰」, 『인문논총』 71-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279-316쪽.
- 노명희,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010, 255-281쪽.
- 박용찬,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 고찰」, 『형태론』 10-1, 박이정, 2008, 111-128쪽.
- 박진호,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011, 289-322쪽.
- 송원용, 「국어 문장성분 분석의 원리와 절차」, 『개신어문연구』 25, 개신어문학회, 2007, 5-31쪽.
- 양명희, 「보어와 학교문법」,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2006, 167-192쪽.
- 이홍식,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6.
- 이홍식, 「한국어의 문장성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5.
- 임동훈, 「현대국어 어미 ‘느’의 범주와 변화」, 『국어학』 59, 국어학회, 2010, 3-44쪽.
- 최형용, 「‘줄임말’과 통사적 결합어」,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191-135쪽.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37/1971.
- 허철규, 「통사론 교육과 교과서」, 『한국어학』 57, 한국어학회, 2012, 91-120쪽.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9일 접수되고
 2018년 12월 10일 심사완료되어
 2018년 12월 14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Grammatical Unit analysis of school grammar

Song Jung-keun

This paper deals with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analysis of morphemes, words, and sentences among the grammatical units of school grammar. Grammar research is basically a discipline that deals with the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grammatical units, so it is reasonable to teach the results and systems of such classifications in school grammar. But this papers insists t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analysis of the individual grammar units rather than the simple end result. First, in terms of morphological analysis, the present tense in Korean is expressed as '-는- ~ -ㄴ-' or 'Ø' according to the honorific system, so both of these forms should be presented.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both of these forms to induce students' attention to the historical changes of a final ending in Korean. Second, in the word analysis, rather than educating only the result classification system that the word can be classified into a single word, a compound word, a derivative word, a compound word, the practice of analyzing a word and a hierarchical structure is more necessar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explain new words such as Blends and acronyms, which are formed by combining syllables cut arbitrarily in words or syntactic structures, by synthesis or derivation, which is a conventional word formation

framework. Therefore, it is a more important task to understand the words by practicing the various methods related to word formation and analyzing the words directly. Finally, analysis of sentence components in sentence analysis has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captures the relationship of constituents of sentence. In relation to the setting of a subject or a predicate, it is also useful for the students to learn the sentence composition by explicitly designating subject or predicate in the adnominal clause or noun clause in the school grammar education.

Key Words : school grammar, morpheme, morphological analysis, tense, pre-final ending, blends, acronyms, word analysis, sentence component